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6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0. 여호와 하나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가을빛을 받아 피어난 울 밑의 산국이 아  
름답습니다. 혹독한 자연재해를 겪었으면서도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임을 아웁니다.

욕망의 썸가를 서성이느라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진 저희들입니  
다. 이제는 돌아와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섰사오니, 세상에서 입은  
우리 마음의 상처자국마다 하늘의 빛을 채워주십시오. 더 이상 덧없  
는 세상일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당  
당함과 겸손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아픔  
을 함께 아파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26:3-4 .....	인도자
♠ 교 독 문 .....	54. 성례식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대표기도 .....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284. 주 예수 해변서 .....	다함께
성경봉독 .....	고전 11:23-25 .....	김중수 권사
어린이설교 .....	날 잊지마! .....	김재흥 목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생명은 생명을 먹는다 .....	김기석 목사

성찬예식 .....	집례 : 김기석 목사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11. 예수 사랑하심은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남을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다 함 께 :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의 보배로 삼아 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20여선교회 주최예배	10월 기도의 밤
말씀: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창운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최인환 선생 김재흥 목사	다함께 박미영 집사

<b>10월</b>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김종훈	최숙화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조병무	방문성	박창운	유영남	배삼순	이기분

## 목장 집 별장에서 보는 십자가

김순남 성도님 댁은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맑은 대낮에도 한번 찾아갈 이유가 없는 다 쓰러져 가는 빈집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순남 성도님 가정이 깨끗하게 집을 수리하고 저녁이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오순도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고 있어 밤중에 찾아도 서먹서먹하지 않은 훈훈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유난히 경치가 좋은 그 집을 ‘목장 집’ 혹은 ‘별장’이라고 불러 줍니다. 후덕한 인심 덕분에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 외롭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을 보면, 외로움이란 아마 스스로 높은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서 생긴 벽 속에 자신이 먼저 갇혀 사는 일인 듯 싶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살이 다 떨어져 나가 덜컹거리는 험한 길을 걸어 구역예배를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성도님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힌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늦게 왔더니요, 방 청소를 미리 못해서 마루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해놨는데 좀 춥겠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별장인데 마루에게 드리면 좋지요, 뭐.”

까만 어둠을 환하게 밝힌 마루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땅 끝에서 들리는 계곡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로 마치 잠시 소풍 나와 드리는 예배처럼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자꾸만 뚝뚝 떴습니다.

마당 건너 언덕 위에선 커다란 밤나무가 인자한 큰언니처럼 넓은 팔을 벌리고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댁엔 짓곳은 염소들 때문에 장독대에도 철망이 쳐 있고 화분들도 모두 그 철망 안에 들어 있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성도님은 저놈의 염소들 때문에 남아 나는 게 없다며 하소연을 하시지만, 제 눈에는 강아지와 닭 그리고 장난꾸러기 염소들이 있어 이 외딴 골짜기에서의 적적한 살림살이에 웃음이 묻어 나는 듯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마운 친구들이지요.

이렇게 바쁠 때는 간단하게 차나 한 잔씩 마시자고 했는데도 성도님은 하루종일 밭에서 고추 따느라 지친 구역 식구들에게 구운 계란과 과일, 식혜까

지 차려냈습니다.

언젠가 혼자 짊짊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이 안쓰러워 물었습니다.

“성도님 혼자 걸어가시면 무섭잖아요, 차 타고 가세요.”

“괜찮아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요, 뭐. 참 사모님, 우리 집 마당에서 보면 교회 십자가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생각나 마당에 서서 예배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망망대해에 보이는 등대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이 외딴 성도님 댁 마당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문득 이관옥 집사님이 나무에 가려 마당에서 교회 십자가 불빛을 볼 수 없다고, 어느 날 톱을 들고 오셔서 예배당 앞에 있는 커다란 수국나무를 베어 내시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사님 심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저녁마다 예배당 십자가 불빛을 보며 힘을 얻는다는 성도님들을 만나며, 우리도 이 골짜기에서 등대지기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다졌습니다. 아무튼 오늘밤은 이 외딴 산속에서 멀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 소리가 메아리쳐 다시 들리는 감격까지 누렸으니 이 기쁨을 뭐라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민형자, 대덕교회 이야기)

## 밭매기 싫어하는 놈이 밭고랑만 센다

맞다, 밭매기 싫어하는 놈은 밭고랑만 센다. 매지 않고 센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놈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얼마나 남았는가만 세고 있다. 뜨거운 피약별 아래 일을 해보면 일하는 모습이 각각이다. 사례 긴 밭에 질리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여 마침내 김매기를 마친 밭을 아름답게 하고 곡식을 잘 가꿔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푹하면 그늘에 앉아 쉬면서 너스레나 떠는 자들도 있다. 말로써 잡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곡식은 주인의 밭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지 말소리를 듣고 자라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밭도 마찬가지로다. 묵묵히 그 밭을 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얼마 남았느니 어떻게 해야 하느니 서너 걸음 물러서 말로만 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어느 쪽인가?

## 꽃나무

꽃나무라고 늘 꽃 달고 있는 건 아니다  
삼백예순닷새 중 꽃 피우고 있는 날보다  
빈 가지로 있는 날이 훨씬 더 많다  
행운목처럼 한 생애 겨우 몇번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다  
겨울 안개를 들판 끝으로 쓸어내는  
나무들을 바라보다  
나무는 빈 가지만으로도 아름답고  
나무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임을 생각한다  
우리가 가까운 숲처럼 벗이 되어주고  
먼 산처럼 배경 되어주면  
꽃 다시 피고 잎 무성해지겠지만  
꼭 그런 가능성만으로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빈 몸 빈 줄기만으로도 나무는 아름다운 것이다  
혼자만 버림받은 듯 바람 앞에 섰다고 엄살떨지 않고  
꽃 피던 날의 기억으로 허세부리지 않고  
담담할 수 있어서 담백할 수 있어서  
나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꽃나무라고 늘 꽃 달고 있는 게 아니라서  
모든 나무들이 다 꽃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도중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철수 유영남 이용한 오성희 김중수 이순정 안종일  
 정현주 백승민 임승동 백혜숙 고사일 최영선 김애경 박성수 박영숙  
 김용길 최영혜 김시영 박옥순 이소순 박시내 김인걸 문영혜 박정숙  
 박영희 김정화 임고운 홍원표

### 월정헌금:

윤주원 최윤선 최성애 하현철 김흥기 이은자 황경순 이동천 왕수명  
 권미정 박준희 이기분 고숙이 백혜성 노봉임 김영한 김수진 김승현  
 장재영 김재영 박범희 이호원

###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박순희 박찬정 구명자 한상익 정영선 이은자

구도헌금: 김기석 김재흥

##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섬	이 명 옥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김 진 경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세계성찬주일** : 오늘 예배는 세계성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열된 세상의 화해자로 보내십니다.
2. **속장·인도자회**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오후집회** :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4. **기도의 밤** : 10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모입니다. 신앙의 알곡을 거두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5. **심방일정** :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일 - 에베소, 엠마오                      9일 - 안디옥, 나사렛
6. **테니스대회** : 제7회 청과테니스 대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한강 둔치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부 테니스 코트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하루하루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들과 작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8. **부음** : 삼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9월 29일 임용선 권사(임승동 성도 부친/백혜숙 집사 시부)  
.9월 30일 백유현 성도(정두리 권사 부군)

\* 점심 - 구명자 권사님께서 대접하십니다.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